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자체의 힘으로 기계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주제40(1951)년 9월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산업성(당시)에서 작성한 지하기계공장들의 설계안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한 일군을 집무실로 부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가 지하공장건설을 처음 하는 조건에서 공사과정에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여도 만년대기로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0월 중순 그 일군을 또다시 불러주시고 기계제작공업발전

의 철박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려면 자체의 힘으로 기계설비들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것이 부족한 전시조건에서 우리자체의 힘으로 기계공장을 건설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기계공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전 시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대로 보장할수 없을뿐 아니라 전쟁이 끝난 다음 흑흑하게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발전시킬수 없습니다.》

그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조선에서 기계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부속품이나 깎으면서 기계를 사다 쓰라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우리 나라 현실에서 기계를 만드는것은 시기상조이니 부속품이나 깎아 팔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기계를 사다 쓰자는 일부의 불건전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가 재빨리 걸어나가려고 하는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료분자, 사대주의자들의 정체를 하나하나 까

박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때 대한 확고부동한 립장을 밝히시었다. 《산업성 일군들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누가 도와주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기계공장건설을 내밀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한 가르치심은 전정으로 일시 시련을 겪고있는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예측시키려는 대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기도와 여기에 추종하는 사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에 된서리를 안겨준 자주의 선언이었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기계제작기창설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에 의해 주제40(1951)년 11월 15일 내각결정 제363호 《공작기계, 자동차부속품제작 및 방직공장건설에 관하여》가 채택되었으며 12월에는 기계공업의 모체공장들의 건설을 알리는 첫 발파가 울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울려주신 이 발파소리는 기계제작공업의 창설로 적들의 총포성을 단호히 짓눌러버리고 강철기둥으로 조국의 영원한 번영을 담보하는 장엄한 승리의 선언과도 같이 전선으로 힘있게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립광훈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총련이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각종 문예 소조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동포사회가 우리 노래, 우리 장단, 우리 춤으로 흥성이게 하고있다.

뜨거운 조국애가 맥박치는 공연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순회 공연 《바람이 되어》가 동포들의 절찬을 받으며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가극단은 니시도쿄에서 성대한 공연무대를 펼쳤다.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동포들이 극장으로 모였다. 공연에 앞서 총련 니시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 민족기악부의 기악중주 《행복

의 니나니노》와 니시도쿄조선제2초중급학교 무용부의 군무 《부채춤》이 무대에 펼쳐졌다. 관람자들은 어린 재간둥이들의 뛰어난 예술적기량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뒤이어 가극단공연이 진행되었다. 기악중주 《바람이 되어》, 흥성중창 《번영하라 조국여》, 가야금과 저대독주

《미레를 향하여》, 무용 《모란봉의 봄》, 《강성부흥아리랑》 등 14개 종목이 무대에 올랐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듯 민족정서가 차넘친 공연은 관람자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동포들은 가극단의 공연을 보면서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었다. 투쟁기세가 더욱 높아졌고 동포사회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었다.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단체

다. 공연이 시작되자 소해금과 가야금, 장세남 등 다양한 민족악기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뽐냈다. 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연주하는 중주단 성원들의 우아한 모습에서 누구나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내용도 훌륭하고 연주수준도 상당하지

만 연주자들이 모두 조선학교졸업생들로서 민족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라고 말하였다. 뜻깊은 공연무대에서 우리같은 박수갈채를 받는 중주단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민족음악예술을 꽃피우겠다는 긍지와 영예가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무용 《강성부흥아리랑》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인의 믿음속에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작가 (1)

사람에게서 어떻게 사는것이 값있는 삶인가.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에서 뚜렷한 자국을 남긴 생이 아름답고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참다운 삶이다. 오늘날 공화국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작가 조령출의 삶도 그러하다고 할수 있다.



조령출선생

작가 조령출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인 1913년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마을에서 자그마한 약방을 차려놓고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이었다. 조령출은 4살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1921년부터 1년반동안 한문서당과 다름없는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말았다. 불행하게도 부친을 잃었던것이다. 얼마후에는 어머니와도 생리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떻게 하나 아들을 공부시키려는 극진한 모성은 어머니로 하여금 어린 자식을 남의 집에 양자로 들여보내는 모진 결단을 내리게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유년시절에 작가가 겪어야 했던 피할수 없는 숙명이었다.

불우한 그 시절에 우리 겨레가 강요당하는 민족적멸망의 울분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자기의 가슴에서 고매치는 심정을 그대로 담을수 있는 문학수업에 뜻을 두게 되었다. 고학의 어려운 길을 걸어온 조령출은 그후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일본 와세다대학 프랑스어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재학당시 그는 웨이크피어와 같은 유명한 극작가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그 시대에 그의 이러한 희망은 이루어질수 없었다. 재능있는 조령출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문인이었다. 인제도 때를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나라잃은 문필가로서 그의 인생은 빛이 없었다. 작가는 창작의 첫걸음부터

시련의 광풍을 힘있게 헤쳐나가야 하였다. 1933년 그의 처녀작 《서울노래》가 신문론에 1등당선작품으로 발표되었다. 가사는 비록 지금은 망국의 울분으로 뭉뚱그림치는 삼천리강산이지만 이미 트고 꽃이 피는 새봄은 기어오고야말리라는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작가는 음란으로 나오자 일제는 불은하라고 하면서 금품몰이를 내리고 모두 압수하여 깨버리는 망동을 부리었다. 작가는 너무 분통해서 가슴을 펴광 두드었다. 조령출은 그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가사창작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작가는 침투력이 강한 가요에 나라잃은 설움에 가슴을 치는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아보려는 욕망으로 모태기였다. 조령출은 우리 민족의 정서를 어떻게 담았는가 하는 창작실천상의 문제에서 중요한 원천을 민요의 보물고에서 찾고 민요적인 바탕을 살려 민족정서를 구현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예쁜 측면에서 다른 시인들이 따를수 없는 특출한 점이었다.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환경속에서도 명승지들

에 대한 노래를 지어 조선이야말로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긍지높이 외쳤으며 조선민족의 넋과 순결성 그리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노래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많은 작품들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처지, 빼앗긴 조국과 고향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노래의 쇠사슬을 하루빨리 끊어버리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려는 희망과 락관의 감정이 백백히 흐르고있다. 결국 작가가 쓴 수많은 신민요가사들과 대중가요가사들은 겨레의 울분과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반항의 감정이 짙은 서정으로 충만되어 있다. 민족수난기 그의 가사들은 그대로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아이였으며 그의 실을 이었다. 본사기자 김영진

외국될수 없는 력사, 차별정책철폐를 요구하여

일본이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얼마전 도쿄에서 100년전 간토대지진당시 조선인학살민항을 규탄하는 긴급집회가 열리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학살희생자의 추도와 책임중구의 행동》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진행된 긴급집회에는 조선인강제련행전시상조사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재일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발언들이 있

었다. 발언자들은 간토대지진당시의 조선인학살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한창 벌리던 때 정부와 군대, 경찰, 자경단에 의한 대량학살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때로부터 100년이 되어오는 오늘까지 그에 대한 진상규명도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조선인학살의 력사를 똑똑히 기억하여야 하며 지금도 공공연히 자행되고있는 일본의 조선인차별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송지화 류학동중앙 국제부장은 지난 5월 류학동 동맹원들과 일본인대학생들로 《조선인학살의 력사를 기억하며 조선인차별을 반대하는 일대행동 실행위원회》가 조직되고 새세대들이 일본의 과거청산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본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식민주의와 조선인

차별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결의하였다. 정영수 조선대학교 강사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조선인학살의 력사적 배경과 오늘까지 계속되고있는 《학살체험자》(학살을 목격한 당사자나 그 유가족들)들의 쓰라린 기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본이 주도한 조선인학살이 어떻게 은폐되고 정당화되어왔는가에 대해 까밝히었다. 그는 《간토대지진당시의 조선인학살을 방불케 하는 폭력이 자행되고있다.》고 하면서 최근년간 일본 각지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 조선인차별행위들을 실례를 들어 언급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일본시민들도 일본사회가 식민주의와 반민족멸시를 시급히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를 합쳐나갈것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였다. 1950년대 미국이 감행한 남조선군을 군사기지화하기 위한 책동과 반공화국군사적 도발행위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미국은 남조선군을 군사적으로 영구강점하기 위해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8군사령부의 1군단을 남조선에 계속 눌러앉아있게 하였을뿐 아니라 1957년에 새로 조직된 《태평양통합군사령부》에 미8군사령부를 직속시키고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이동시켰다. 이와 함께 남조선강점 미7사단과 1기갑사단을 전술핵무장을 갖춘 사단으로 개편하고 각종 원자무기를 끌어들이 남조선군을 저들의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피괴군의 지휘체계를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놀음을 벌렸다. 미국에 의해 남조선피괴군에 련합참모회의와 그 상설기구인 련합참모본부 그리고 제1, 2군 사령부, 남조선교육총본부가 조직되었다. 이와 함께 남조선피괴

군을 20개 사단으로부터 35~40개 사단으로 늘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먼저 1개 해병대사단과 10개 예비병사단, 새 전투비행단을 편성하였다. 또한 남조선피괴군을 105mm반포로, 203mm포사포 등 각종 신형무기들로 장비시키고 수십개의 비행장들과 해군기지를 보수 확장하거나 신설하였다. 미국은 남조선군을 저들의 침략전진기지지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새 전쟁의 불길은 터지기 위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어기면서 공화국지역에 총포사격을 하고 군용비행기, 함선, 무장인원, 간첩암해본자들을 그칠새없이 들이밀었다. 또한 조선전쟁협정을 파괴하기 위해 중립국시찰소조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고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할때 대한 조선전쟁협정 제13항 기록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으며 반공화국전쟁연습을 매일같이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렇게 전후 1950년대 미국은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미쳐날뛰었다. 본사기자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범죄적인 망동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방대한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붓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섬나라가들이 핵오염수방류시설의 시험운영을 강행한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인류를 핵재난속에 몰아넣으려는 고의적인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10여년전 렬도를 뒤흔든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여 생겨나고 축적되어온 60여종의 방사성핵종이 들어있는 130여만톤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학계가 주장한것처럼 섬나라가들의 핵오염수의 바다방출이 실행되는 경우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57일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수역으로, 10년후에는 전 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 조선동해와 태평양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해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해양환경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인류는 핵참화의 위험속에 빠져들게 될것이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가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

것들은 한사코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려 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섬나라가들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의 기로를 《행토로 채취하여 검토했다.》느니,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느니 하는 당치않은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섬나라가들의 반인륜적망동을 적극 부채질해주고있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회세의 사대매국노, 친화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박철남



2023 대구지역통일선봉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적 투쟁의 불꽃이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저들의 비참한 패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은 대신 어리석게도 반공화국전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